

비행언과 은사

방언, 하늘의 언어인가?
축사, 어떻게 하는가?



데이비드 가우어(David M. Gower) 지음



사랑침례교회
www.cbck.org

은사에 대한 답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질문이란 것이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답을 안다면).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벧전3:15)는 말씀은 매우 고무적이며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 함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포함합니다(골1:23).

우리는 성경적인 ‘칭의의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 명령은 직접적으로 교회의 목사나 집사 혹은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종이나 아내나 남편들에게 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과 그 이후의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지침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모든 지체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목사를 구실로 삼아 이러한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목사는 목양 사역의 일부로서 각종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목사를 찾아가서 물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목사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데 필요한 연습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곁에 성경을 잘 아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은 어떤 부인이 논쟁이 되는 교리 하나를 갖고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목사는 그 교리에 대해 근본주의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견해를 정리해 놓은 건전한 책 한 권을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러 견해가 아닙니다. 그냥 정답을 말해 주세요. 그럼 믿겠어요!” 이러한 부인의 태도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칭찬할 만한 태도와 비교됩니다. 사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조차도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보고 상고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요한1서 2장 27절 말씀은 멋진 균형을 이룹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엡4:11)

이 글은 ‘비은사주의 크리스천이 은사주의에 대해 묻는 12가지 질문’에 대해 가우어(David M. Gower)가 답변한 것으로 미국 ‘Regular Baptist Press’에서 나온 소책자를 저자의 허가를 받아 번역한 것이다. 참고로 이 책자에서 ‘은사란 단순히 ‘선물’(gift)을 뜻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요 일2:27).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그들이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이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일 년 전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더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매우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 중 어떤 것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종종 은사 운동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믿고 다른 표적 은사들(기적을 행함, 병 고침 등)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960년 캘리포니아 주의 밴누이스(Van Nuys)에서 시작된 이 은사 운동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최근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그리스도인들의 19% 가량(2900만 명이 자신을 은사주의자 혹은 오순절주의자로 여기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가히 놀랄 만한 성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21%가 바티스트(침례교도)라고 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주요 프로테스탄트 진영뿐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초교파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교리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표적이나 이적을 중심으로 모여 각자가 믿는 것(정통이든 비정통이든)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공식적인 회원 명부도 없습니다. 단지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교회 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과 같은 체험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자, 여기 몇몇 은사주의자들 특히 성경을 믿는 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성경대로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비은사주의자들에게 묻는 열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1: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속죄의 한 부분인 병 고침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도전적인 성격의 질문입니다. 비은사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채찍에 맞아야겠군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분명히 그분의 죽음과 실제 처형 중에 당하신 채찍질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침을 받도록 채찍을 맞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처럼 병 고침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기에 나오는 ‘고침’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신체의 치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것이 성령님께서 육체적인 치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1. 성경 전체에서 ‘고침’(healing)이란 단어는 여러 종류의 고침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이 말은 주로 육체적인 치유를 나타내었지만 상심한 마음을 달래는 데도 쓰였고(눅4:18) 마귀의 억압을 제거한다는 뜻으로도 쓰였으며(행10:38) 또 죄로 물든 행실을 버리는 것을 뜻할 때도(히12:13) 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할 때에도 ‘고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벰전2:24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이 잘 아는 ‘stick’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뜻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맥에서 빗자루, 성냥개비 혹은 접착제 같은 단어가 함께 나온다면 아마 이 단어의 뜻을 문맥을 통해 미루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고침’이라는 단어의 뜻도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벰전2:24의 전체 내용이나 또 전후의 문맥에 육체적인 치료를 연상하게 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죄가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 고침이 영적인 치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독자 여러분)는 죄를 짓지 않으신(2:22-23)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2:21). 이러한 높은 수준의 행실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들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2:24).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잃어버린(구원 받지 못한) 양처럼 방황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2:25).

이처럼 여기서의 ‘고침’(healing)은 영적인 치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의 고침을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로 본다면 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3.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마지막 구 즉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와 25절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5-6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고침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범법과 불법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 관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죄의 치유는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이사야서 1장). 대인자 이사야가 다른 환자인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많고 불법에 싸여 있었으며 주님께서 버리신 악인들로 가득했습니다(1:4). 하나님은 이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명과 붉은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사1:5-6).

이 환자의 병세가 신체의 부위별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의사로 그것도 영적인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주님을 꾸짖자 주님은 자신이 왕진을 나온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진을 나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마9:10-30). 정확한 때에 위대한 의사께서 영적인 치료의 일을 마치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시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즉, 손수 내리신 처방에 필요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누구나 죄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사주의에서는 보통 이 둘을 서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며 이 둘이 성령님의 단일한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은 늘 그 차이를 묻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공부해 보면 이 둘이 단순히 구분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을 살펴보고 나중에 둘을 비교해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은 신약에서 11번 나옵니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행1:5; 11:16; 롬6:1-7; 고전12:13; 갈3:26-28; 엡4:5; 골2:12). 이 중의 다섯 구절은 예언의 말씀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섯 구절 모두 성령 침례를 미래 시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성령 침례가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 줍니다. 과거 시제도 있는데(행11:16) 이 말씀은

오순절 사건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날 이루신 성령 침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구절은 서신서들에 있으며 모두 성령 침례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무엇이 성령 침례인가?

‘침례(뱃티스마)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잠그다’ 혹은 ‘담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의 사물을 다른 데로 옮겨놓다’는 의미가 있지요. 성령 침례는 이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성령님 안으로 잠기게(baptize) 하십니다. 여기서도 침례라는 단어가 쓰이며 이는 곧 그를 성령님의 세계로 옮기심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잠기게(baptize) 하십니다. 즉, 그를 보편적 교회라는 새로운 세계로 옮기신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여 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요1:33)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는 니라(고전12:13).

2. 언제 성령 침례가 일어났는가?

성경은 성령 침례가 성도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경험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셔 들이고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불가결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3. 누가 성령 침례를 받는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도 이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고전12:13).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신자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육적인 모습이 공공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4. 성령 침례를 사모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추구하라는 명령도 없고 심지어 그 같은 언질조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왜 이리 조용한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지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소유가 된다면 굳이 그것을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신약에서 15번 등장합니다(눅1:15, 41, 67; 4:1; 행 2:4; 4:8, 31; 6:3, 5; 7:55; 9:17; 11:24; 13:9, 52; 엡5:18). 이 중의 14구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모임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성령 충만이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말해 주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충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의 통치하에 있다' 혹은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술에 취하는 것(술에 지배당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비교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는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충만하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현재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다시 쓰자면 '계속해서 충만하라.'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믿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제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살면서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그때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이 말씀은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모든 믿는 이에게 적용됩니다. '충만하라.'는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복수를 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명령은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두 동시에 충만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의 명령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불순종하여 충만하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롬 6:13; 12:1) 성령의 권능 안에서 걸을 때(갈5:16)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항상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순종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닌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으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명령인데 이는 그것이 믿는 이가 따라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는 믿는 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성령 충만은 믿는 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사람의 행동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성령 침례가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일어나는 둘째 축복이 아니라면 왜 초대 교회 사도들은 구원받은 후 몇 년 뒤에 성령을 받게 되었을까요?

은사주의자들은 보통 성령 침례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즉, 성령 침례는 그 뒤에 -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음 -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늦추어진 성령 침례를 소위 '둘째 축복'(Second blessing)이라고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영생의 축복에 버금갈 만큼 놀라운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에 나온 사도들의 예는 소위 '둘째 축복'으로서의 성령 침례를 증명해 준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들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받았고 심지어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의 침례를 경험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분명히 많은 이들은 우리 역시 이러한 사도들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추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을 전후하여 하나님의 치리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세대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은 이미 지상에 있었고 성령님은 심지어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고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그분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몇몇 사람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성령님의 내주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영속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침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세대만이 가지는 독특한 것이며 바로 오순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우주적이고 영속적인 내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세대에서 성령님은 성막을 만드는 자나 재판관, 대언자(선지자),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이때 성령님의 내주는 단순히 그들의 구원을 보여 준다기보다 그들이 맡은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가 맡은바 소임을 마치지 못하거나 불순종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하면 자연히 성령님도 그를 떠나가셨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봅시다. 처음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님은 사울 안에 거하셨습니다(삼상10:1-6).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주님의 영은 그를 떠났습니다(삼상16:14). 이 때문에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한 후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시도록 부르짖었던 것입니다(시51:11). 다윗의 기도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기도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자 안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롬8:9).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동안에도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셨지만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요7:3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직전에 성령의 사역이 곧 바뀌게 되리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혹은 그들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께서 곧 제자들 안에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17).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이 있는 뒤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6:7-14).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행11:15, 17). 이 사건을 시작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 안에 영구히 거하게 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침례를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침례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고전12:13). 그리스도의 몸은 보편적 교회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엡1:22-23).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개개인을 교회 안으로 옮기는 일도 교회가 존재한 후에야 시작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성령 침례는 오순절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실 때 성령 침례를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행1장). 오순절이 오기 10일 전만 해도 성령 침례는 현실이 아닌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 몇 년이 - 혹은 최소한 몇 달이 - 지난 후의 일인데 이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 침례가 없었고 사도들은 오순절 이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시대에 태어나신 것처럼 율법 시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갈4:4).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후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침례는 사도들에게 '둘째 축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성령 침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순간에 주어지는 복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체험은 독특한 것인데 이는 그들이 두 세대 사이의

과도기(변천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예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4: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은 분명히 '타언어(방언)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본인 스스로 방언을 하지 않고 심지어 오늘날 방언이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런 은사주의의 관행을 교회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호한 입장 때문에 우리는 옹졸하다거나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언어들도 [방언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Whether there be tongues, they shall cease)(고전13:8)

이 구절은 방언이 그치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언이 언제 그칠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먼저 고전13:8-12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세 가지 임시적인 복이 나옵니다: 대언, 방언, 지식. 분명히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동사의 성격상 - 즉 '없어지다'(done away)와 '사라지다'(vanish away) - 대언과 지식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부의 힘이란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대언과 지식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완전한 것'을 신약성경의 완성으로 보기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봅니다. 만일 그 '완전한 것'이 신약성경이라면 대언과 지식은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9절은 부분적으로 알고 대언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10절은 완전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란 틀림없이 부분적인 것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은 지식과 대언의 완성 혹은 완성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임시 복인 방언(타언어)에 대해 살펴봅시다. 방언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동사인 '그치다'의 성격상 우리는 방언이 앞에 나온 대언이나 지식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끝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언(타언어)이란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그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볼 때 방언은 스스로 그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완전한 것이 임하므로 대언과 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을 신약성경의 완성으로 이해한다면 방언은 그 이전에 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여전히 방언이 그분의 재림 때가 아니라 재림 이전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22절은 방언이 종결된 시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인용구인 고전14:21을 보면 외국어 방언의 표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개념이 고린도서에도 적용된다면 방언의 은사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말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후 7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를 부으셨으며 이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 방언은 주후 70년에 지식과 대언은 주후 90년에 각각의 목적을 다 이루고 그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방언이 2세기나 그 이후의 정통 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압니다. 그러나 몇몇 이단들은 계속해서 방언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나 집사의 자격에도 방언은 없습니다(딤후3장; 딤후1장). 만일 방언이 교회 시대 전체에 필요한 은사였다면 분명 본을 보이며 양 무리를 이끄는 자들은 마땅히 이 은사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방언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들의 대부분이 자신은 그리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방언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효했고 실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언 전부가 금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런 경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은 그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방언은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금하신 명령(마10:5-6) 만큼이나 교회와 무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언의 은사가 그쳤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목적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라는 목적을 거의 달성할 수 없다는 성경적인 이유에서 우리는 은사주의 관행을 우리 교회 안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게 되면 늘 불화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오늘날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실행의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은 채 행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데(히13:8) 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보통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어제(사도시대) 하신 방식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

록 유지하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도시대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사를 주실 것이고 이 일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과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변경하지 않으실 이 위대한 진리를 간과한 것일까요?

은사주의자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의 은사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언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 13:8). 그 정확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지만 방언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분명 방언을 일시적인 것으로 말하기에 방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은사주의자들이 ‘어제’를 사도시대로만 국한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담이나 노아, 아브라함, 모세, 왕과 대언자(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오순절에 이르러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거나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이 구절을 방언의 은사와 연관 지으려는 사람은 자연히 ‘어제’에서 구약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방언의 은사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 주는 역사를 보더라도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가 그렇게 최근에 시작되었다면 ‘영원’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겠네요.”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어제의 시작을 사도행전으로 보고 그 이전의 인류 역사를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사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우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할 뿐이며 그분과 관련된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그분의 활동이나 역사하시는 방식조차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방언의 은사도 오늘날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운행 방식이 변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변화 정도가 심해 다른 직무(administration)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직무를 일컬어 우리는 보통 ‘세대’(dispensation) 혹은 ‘경륜’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순절 이전에는 방언의 은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륜/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나 인간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늘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항상 동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히브리서 13장 8절을 그 문맥에 비추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서 구약시대의 레위의 제사장 체계보다 월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바꾸셨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의 '레위 제사장 체계'로 되돌아갈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와 일관성을 모두 발견합니다. 좋은 변화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구약)' 대신에 '새롭고 좋은 언약(신약)'을 가져오셨다는 것이고 나쁜 변화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일관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9절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히13:7-9).

7절은 살면서 그리스도께 신실했던 그들 이전의 지도자들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이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다음 세대가 따라야 할 본을 남기고 갔습니다. 8절은 히브리인들이 항상 신실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선배들은 갔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들도 계속 신실해야 하는 동일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9절은 적용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합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거짓된 교리들을 피하고 참된 은혜의 교리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 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정 음식(희생으로 성별된 음식물)을 먹는 의식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세워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경영 방식(경륜/세대)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 레위 사람들의 의식, 레위의 제사장 체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활동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을 지속하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본질, 위치는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불변합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변치 않으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변치 않는다는 것이 그분의 인격과 본질에 관련된 것이지 그분의 역사와 경영 방식까지 똑같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이 방언의 은사가 지속됨을 보증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 6: 당신은 방언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연구한 결과 현재 은사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논리적인 구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거의 항상 영문 모를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의 은사가 화자가 모르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흔히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라고 말하는 황홀경의 소리들을 말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방언(타언어)으로 말한 예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흔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였고 고린도전서의 경우는 하늘의 언어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비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의 은사가 늘 사람의 언어였고 따라서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언사(utterance)는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검증해 보도록 하지요.

성경에서 ‘방언’(타언어: tongues)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리스 원어는 ‘글로썸’(glossa)이며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입 안에 있는 혀; 사람이 구사한 언어; 특별한 지역의 사투리, 즉 방언; 이해할 수 없는 말’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글로썸’(glossa)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각각에 해당되는 바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한 예가 사도행전에서는 세 번 나옵니다. 우선 첫째는 2장 4-11절의 오순절 사건인데 여기서 4절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 줍니다. 6, 8절을 보면 이 다른 언어가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명절날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포함한 군중들이 놀란 것은 ‘각 사람마다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는 것은 어찌 된 일이나?” 바로 이 구절 다음에 그들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명단이 등장하며 거기 나오는 각 지역은 곧 그 지역의 언어를 보여 줍니다. 바로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나머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 줍니다.

둘째는 10장 44-48절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난 기적도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하게 “타언어로 말하다.”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단어가 사도행전 2장의 경우처럼 사람의 언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성령님의 선물이 ‘이방인들 위에 임하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45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며 그 일을 자신이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오순절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같이 하시더라...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도 주셨으니...(행11:15, 17)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도 성령님이라는 인격이지 방언의 나타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라는 분은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 한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지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것(방언)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기적도 “그들이 타언어로 말하더라.”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 말이 사도행전 2장이나 10장의 경우처럼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14장에서도 방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논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이 사람의 언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하늘의 언어나 혹은 천사의 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사도행전처럼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방언을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 본문을 읽어 보아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사람의 언어라는 결론에 더 가깝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가까운 동역자요, 친구 사이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진도 여행 때 그와 두루 동행했습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사도행전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보다 약 5년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거기에 바울이 이미 사용했던 방언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틀림없이 동일한 선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방언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기에 그 선물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굳이 방언의 본질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독자들이 이미 그 선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누가가 동역자였다는 것과 바울의 기록이 우선한다는 것, 누가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언어(unknown tongue)를 구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묘사할 때 바울이 쓴 것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등과 같은 사실들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해 줍니다. ‘분명한 소리’(distinct sounds, 고전14:7-11)라는 말의 개념도 14장 21절의 인용과 14장 22절의 설명을 볼 때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사람의 언어임을 보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tongues of men and of angels, 고전13:1)도 문장이 보여 주는 대로 하나의 가정 하에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의 언어들'(tongues of men)을 말한다고 했고(14:18) 실제로 모든 지식과 믿음을 가지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천사의 언어들(angelic tongues)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 과정이 없이도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언어'(unknown tongue)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어떤 종류의 인간의 언어도 아니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7: 당신이 마귀들을 내쫓을 수 없다면 어떻게 마귀들을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들을 강력히 그리고 단호하게 내쫓으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귀를 내쫓는 일이 비밀비재합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마귀와 활동과 엑소시즘(逐邪, 마귀 쫓아내는 일)이 세인들의 관심을 끈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세상의 통치자라고 믿습니다. 또한 다른 타락한 천사들 곧 성경에서 종종 마귀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사탄의 일을 도우며 선한 천사들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 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 '우리가 삶과 피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을 믿습니다(엡6:12).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내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마귀를 쫓는 일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초대 교회에만 주어진 일시적인 표적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지침 사항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침의 중심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마귀를 쫓아야 한다는 명령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가 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체험해야지 사도들의 체험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를 쫓는 것과 관련하여 사도들이 가르친 바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은 신약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을 다루는 구절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과연 마귀를 쫓아내는 것(축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방어용 갑옷과 사탄과 마귀들을 패주시킬 공격용 무기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을 다루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악한 영들의 적수가 못됩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은

힘과 능력 면에서 사람보다 월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권위로 마귀를 대항하거나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려 하는 것은 마치 장난감 총으로 전함을 침몰시키려는 어린이의 시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도다.”(요일4:4)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 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마귀들은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마귀들의 능력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 머무르며 자기들의 힘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욥의 경우처럼). 따라서 우리는 마귀들이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시대의 믿는 자 모두 안에 내주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귀들을 다루는 둘째 단계는 마귀들의 공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아는 전략가는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벧전5:8). 그리고 성경은 마귀의 공격이 간교하고 속임수로 가득하다고 말하며(엡6:11) 동시에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고후2:11). 그렇다면 이 같은 전략이 무엇일까요?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길 원하며 또한 말씀보다 이성을 우위에 놓기를 원합니다(창3장).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자연적인 질병의 고통과 죽음을 이용합니다(욥기; 히2:14). 악한 세력들은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며(요 13:2) 이것을 매우 그럴듯하게 만들어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도록 합니다. 그들은 또한 ‘육’(肉)을 사용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타고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나 휴거를 받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흔히 ‘육’이라고 부릅니다. ‘육’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며 마귀는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삶에 관여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에다 자신을 내어줄 때 마귀는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우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을 통해 사탄이 우리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고후2:6-11; 엡4:25-29).

주님의 군사라면 마귀가 이러한 경로로 자신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격을 경계하며 대항할 준비를 갖추는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영향력을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다루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12절은 바로 이것을 위한 병기고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의 거짓말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을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사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채 전장에 들어가 악을 파악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들고 전장에 들어가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의심을 심습니다. 따라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의 공격은 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적을 간파하고 적의 사악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공격 무기인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도망칩니다. 물론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윤향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마귀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질문 8: 왜 기적의 은사가 오늘날에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적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 자신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 행하십니다. 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치리하기 위해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양식 혹은 법칙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양식은 너무도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자연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도 움직이십니다. 이렇듯 변칙적인 운행 방식을 보통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기적이란 흔히 않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흔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니라 일상사가 될 테니까요. 지구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여 태양이 매일 아침 떠오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도는 과정을 기적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세 가지 커다란 기적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첫째 기적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율법이 주어질 때로부터 시작되어 약 1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둘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엘리야와 초기 대언자(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구약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때 주어졌는데 이 기간은 약 1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기적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와 사도들의 활동하던 때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신약성경이 주어진 시기이고 약 7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어셔의 연대기’(Usher's dates)에 따르면 성경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약 6000년임을 보여 주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이 같은 역사가 옳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발생한 시기는 그중 5% 정도인 320년에 불과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33년간의 지상 생애 동안에 단 3년 동안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인데 이는 그분의 전체 생애의 9%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성경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곧 사도시대에 주어진 기적의 은사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없음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시적인 목적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말할 때 쓰인 세 단어가 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먼저 기적은 '능력 있는 일들'로 불리는데 이는 행위 뒤에 숨겨진 권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때론 기적이 '이적'(wonders) 즉 '놀라운 일'이라 불리는데 이때에는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기적은 '표적'(signs)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보여 주고자 함을 강조하기 위해 즉 기적의 첫째 목적을 강조할 때 쓰였습니다. 만일 기적이 능력 있는 일이나 이적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과 말씀의 참됨을 보여 주는 표적입니다. 앞에 언급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 시기가 성경 말씀을 주신 시기와 비슷한 시기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대변인이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내가 표적으로 그들의 말을 확증해 주지 않느냐?"

신약성경은 특히 기적을 표적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31절과 10장 37-38절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실제 자기가 행한 기적의 권능을 이용하여 입증하려 했습니다(고후 12:11-12).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적들로 자신들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히2:3-4).

기적의 취지가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될 때 기적의 은사도 그쳤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적의 은사는 초세기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오늘날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육신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들이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논거는 기적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성경은 우리가 기적의 은사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서 지속되는 현상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특정 개인에게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질문 9: 왜 병 고침의 은사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가 건강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탈 없이 잘 지내도록 몇몇 사람에게 치유(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을 공부해 보면 건강이 나쁜 것이 때로는 어느 특정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고후 12:7-10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치유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시는 일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체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수만이 이런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에게 나아가 병자들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치료하였습니다. 심지어 몸 전체를 완전히 고치기도 했습니다(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

사실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에게 온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자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기적적인 능력의 일부입니다(히2:3-4). 그렇습니다. 치유 받은 자는 고통과 불편함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혹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사도 다른 기적들처럼 성경 역사의 어느 특정한 때에 일어난 표적이었습니다. 치유하는 자(healer)가 땅에 걸어 다닌 시간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극히 짧았습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들이 병이 났을 때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도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매우 드물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인' 에바브라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빌2:25-27). 바울은 선교 여행 때 자기와 동행한 드로비모를 고치지 못하고 아픈 채로 밀레도에 남겨 두었습니다(딤후4:20).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를 고칠 수 없었고 대신 일반적인 처방을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고후 12:7-10).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적절한 약을 사용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원하는 것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치유의 은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다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본이 됩니다. 즉, 아프면 기도하고 의학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아픈 그리스도인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처방으로 기름을 부을 것을 가르칩니다. 이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의 의학적인 처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로 쓰인 그리스어가 '크리오'(chrio) - 즉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나온 단어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뜻함 - 가 아니라 '알레이포'(aleipho) - 즉 몸을 문지르는 것 - 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바라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치유의 은사가 교회 시대에도 계속된다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확실하게 고침을 받는 것은 실로 내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롬8:23).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서 영화로운 몸을 주셔서 죄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치유를 잘한다고 크게 소문이 난 소위 크리스천 치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치유사들이 고친다는 질환들은 실제 병이기는 하지만 대개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거나 외적인 영양에 의해 악화된 것입니다. 희생자들은 단지 생각을 달리함으로써 - 가령 치유함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 상태가 완화되는 체험을 합니다. 몇몇 질환은 순전히 상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들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치유 사례를 연구해 보면 증상은 완화되었으나 실제 상태는 그대로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치유사가 귀머거리나 복합골절 환자나 선천성 기형아를 고친다거나 죽은 자를 일으킨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치료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실사 오늘날 능력의 치유사가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그런 치유사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심령술에 빠졌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악한 세력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사탄이 7년 환난 기간 동안 그러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살후2:9-10; 계13:11-15). 마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나타낼 수 있기에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고후11:14-15).

치유는 표적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자 치유의 은사는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대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더라도 치유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더라도 치유의 은사는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 기도와 의학적인 처방을 의지해야 하며 이것만이 병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사 자신의 뜻 안에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으며 지금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아 손만 대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질문 10: 당신은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계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까?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오순절주의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대언 - 즉 직접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것 - 의 은사와 대언자가 오늘날에도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대언자는 본래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그 메시지가 미래의 있을 일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30절은 대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 줍니다.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차례대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계시를 주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약성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알리고 싶은 모든 일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즉 주님은 기록된 말씀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의 끝 부분에 친히 추신을 다셨다면 일은 간단해질 것입니다. 가령 “이로써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직접적인 계시는 끝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끝’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간접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절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 주신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 주님께서는 한 방식을 쓰셨고 이 마지막 날들에는 또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먼저 주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나간 때에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계시와 영감된 기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때마다 하나씩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계시들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물론 전체로는 완전함). 이 구절의 그리스어 어순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으나 지금 마지막 날들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in the past)에 쓰인 그리스어는 ‘낡은’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그리스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 혹은 ‘오래 지속되었다’는 뜻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포드사의 썬더버드 자동차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인 단어는 ‘사용하기에 오래되었다’, 즉 ‘낡았다’, ‘뒀았다’, ‘바꿀 때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령 경찰차나 택시가 낡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시를 주셨던 기간이 다른 기간 - 계시의 수여 방식이 전혀 다른 기간 - 으로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대언자를 통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요, 세상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 자신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월등한 분이 월등한 계시를 가져오십니다. 풍부함과 완전함에 있어 월등한 계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의 가르침을 기록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가르침을 친히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므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셨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처 제자들이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완성하셨습니다(요 16:12-15). 역사를 보면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70년 내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은 사도들과 그들의 측근들이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더할까 합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장이 되기에 적합합니다. 계시록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 세계를 꿰뚫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일들의 책(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책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거기서 빼서는 안 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1) 「성경 바로 보기」(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물론 이 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먼저는 성경 전체가 아닌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위대한 성경전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마지막 계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추가적인 계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성경이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질문 11: 신약시대에 방언이 성령 침례를 보여 주는 표적이 아니라면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릅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겠네요?” 둘째 질문은 방언의 은사가 성령 침례를 보여 주는 확실한 표적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그는 방언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고린도전서만 보아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전문가들만 모인 곳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그 어떤 다른 교제보다 더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그렇게 널리 퍼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방언의 근본 목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목격했고 이를 통해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인상을 유대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이 대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같은 방언의 목적을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바로 전 구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불신 행위] 주가 말하노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널리 행해진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특하게 그리고 널리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성경 시대에 고린도 교회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고린도에서,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행18:1-3).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행18:4). 실라와 디모데가 곧 바울과 합류했고 고린도의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행18:5).

그런데 마침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 선포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났고,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은 회당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행18:6). 이제 그들은 복음 전도의 초점을 이방인들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행18:7). 따라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바로 자기네 옆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었습니다(행18:8). 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변절하여 교회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보의 뒤를 이은 차기 회당장이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교회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자체를 금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스테네가 그리스보의 자리를 이을 자로 뽑혔습니다(행18:17). 물론 성경은 소스테네가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는 본연의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최종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서신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유대인 회당장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 바로 옆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교회 모임은 바로 회당 옆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중에는 전직 유대인 회당장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로서 이 교회에 방언의 은사,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작용할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30절에서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중 하나가 “모두 타언어(방언)들로 말하겠느냐?”입니다. 어쨌든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은 “아니다!”입니다.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방언이 하나의 은사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고전12:11). 모든 은사를 다 갖춘 성도는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고전12:13). 앞에 나온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동일한 장에서

가르쳐지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성경은 이 신약시대에 방언의 은사가 성령 침례를 보여 주는 확실한 표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는 모든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으나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12: 사도행전의 체험들이 교회 시대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앞에 나온 내용에 대개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방언과 기적과 치유의 은사가 실제 행해졌던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은사들은 표적의 성격을 지니며 하나님의 새 메시지 곧 신약을 전하는 자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신약성경이 완성되자 표적의 은사들은 그 소임을 다했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보여 주었던 기적의 은사들은 교회 시대의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기의 것을 가지고 현재의 교리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태어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비로소 신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편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였던 모세의 법을 성취하시고 끝내셨습니다. 또 그것 대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셨고 이 복음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물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성전 예배 등을 행했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하나님께 정결례를 드리는 등 율법에 따른 관행들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동차에서 기어를 바꾸셨는데 백성들은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운행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일시적이거나 자신을 특별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과도기 역사를 보여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을 교회 시대 전체의 청사진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의 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서신서에 나타난 역사들과 늘 같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쳐서 죽이심으로 즉각적인 교회의 징계를 보여 주셨습니다(행 5:1-11). 그러나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지역 교회가 죄지은 자를 겸손하게 기도하며 징계하라고 말합니다(고전5:1-5; 고후2:5-11; 갈6:2; 살후3:6-14, 15; 딤후3:10-11). 오늘날의 지역 교회는 앞에 나온 두 가지 경우처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과도기의 사도행전의 예가 아니라 모든 것이 확정되고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주신 에베소서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이 오늘날 교회의 청사진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식대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의 교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둘째 축복’이라는 의견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강림이 늦어진 경우가 사도행전 2장과 8장에 등장합니다. 2장의 경우는 위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은 지 몇 년 후에 성령 침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성령 침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장의 사마리아인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미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의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순서로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성령님의 나타나심 즉 방언이나 표적으로 나타나심이 매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후에 방언 등과 함께 임하는 둘째 축복 즉 성령 침례에 대해 일관적인 사례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구원의 일부 즉 구원받은 즉시 신자의 몸을 가득히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성령의 역사로 보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을 의지하여 성령을 ‘기다리는’ 교리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 8, 10, 19장 중 오직 2장만이 믿는 자들이 성령을 기다린 사건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제자들은 성령님을 간청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실 때를 단순히 기다렸습니다(행1:4, 5, 8). 서신서에는 성령을 받는 것, 심지어 성령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지침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방인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우리의 지침서는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과도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서신서는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리와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신약성경 전체를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엡3:20). 이 위대한 부활의 권능(엡1:19-21)은 기적 같은 일을 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엡3:21).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며 움직일 때 하나님
이 같은 일을 행하시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의 은사를 구할 때 행하시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고전14:20).

¹¹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¹²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¹³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¹⁴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¹⁵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떠나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4:12-15).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 당하려 하느냐?(갈4:9)



축사,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행한 여론 조사를 보면 그 당시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며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귀를 믿고 심지어 사탄주의에 빠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1973년 워너브라더스픽처스가 제작한 윌리엄 피터 블래티의 '엑소시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영화는 12세 소녀의 몸에 깃들인 악령과 이를 퇴치하려는 신부들 간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 개봉 당시 졸도하는 관객이 속출하며 전 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작품은 제46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각색상과 녹음상을 수상하고 현재까지 공포영화 분야에서는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으며 지금은 후속타로 엑소시스트 4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이렇게 추세가 반전된 데에는 경험을 중시하고 성경을 왜곡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약시대에 성령님의 일과 또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마귀의 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순진하고 무지한 크리스천들을 미끼로 삼아 돈을 갈취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으며 특히 목사라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 더욱욱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마귀와 마귀를 내쫓는 일 즉 축사 등의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한다.

병과 마귀 들린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먼저 병과 마귀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름만 대면 금세 알 수 있는 은사주의 목사들은 모든 병이 마귀에게서 온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들은 병이 걸리면 삼촌 귀신²⁾, 할아버지 귀신 등을 내쫓기 위해 축사를 행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마귀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2) '우리말 큰 사전'은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냇'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 중국 등에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귀신이 없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 즉 사탄 마귀(The devil)의 줄개들은 '마귀들'(devils)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마귀들을 모두 귀신들로 번역해서 동양의 샤머니즘을 부추기고 있다. 날마다 '귀신 귀신' 하는 목사들은 대개 잘못 번역된 성경의 희생자들이다.

은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거나 사람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밤에 천사를 보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말하는데 실로 이것은 대개 신경의 질서가 깨지거나 독한 약을 먹거나 과민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지 마귀 들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병자들을 보고 마귀 들렸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이 마귀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시니

병든 것은 육체의 연약함이다. 마귀 들리는 것은 영적인 침투 현상으로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다. 의사가 병의 처방을 내리기 전에 철저히 검사를 하듯이 우리도 육체의 질병과 영적 침입 현상을 잘 나누어야 한다. 마귀 들리지 않은 사람을 마귀 들린 것으로 몰아붙여서 축사를 하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마귀 들린 것과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마귀 들렸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 나는 먼저 그분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맞이한 적이 있는가 물을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분명히 성경대로 구원 간증을 하면 나는 그분에게 “선생님은 마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육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아픈 증세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이라면 결코 마귀가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것과 마귀 들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크리스천도 마음을 놓고 주님의 말씀을 게을리 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마귀 들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는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 해 준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봉인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마태복음 27장 62-66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뒤에 누가 와서 그분의 몸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무덤의 돌에 봉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66절).

자, 그들이 봉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로마 군인들은 감히 그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밖에서 누가 들어가 그분의 몸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봉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봉인하시므로 마귀가 침입하여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

에베소서 6 장 11-17절은 신자들의 영적 전투에 대해 잘 보여 주며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여 준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전신갑주는 곧 갑옷을 뜻한다. 왜 군사들이 갑옷을 입는가?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여기 나오는 흉갑, 투구, 신, 방패, 칼은 모두 밖에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에 대해 바울이 기록하였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책, 음악, 영화, 그림, TV 프로그램, 친구 등을 조심해야 하며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마귀는 우리의 몸 안에 거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마귀를 어떻게 쫓을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 “이 감기 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쫓나오라!”고 외쳐야 할까? 성도로서 특히 목사로서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목사의 경우 멋있게 마귀를 내쫓으면 금방 신도가 늘고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내가 다니던 미국의 주립대학 옆의 한 교회에 LA에서 귀신 쫓는 것으로 유명한 김OO 목사가 온다기에 호기심에 차서 갔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는 그 여인의 원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너 누구냐? 왜 들어갔냐?” 등등을 묻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 뒤에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귀신 쫓는 목사가 나타나면 꼭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마귀들이 합작으로 쇼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이것은 마귀들의 합작 쇼이다.

마귀 들리는 일은 실제로 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마귀를 쫓는 것이었다. 마귀들이 존재하고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마귀 들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축사를 해야 할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그분의 부활과 영생의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다.

그러면 마귀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마귀 들렸습니다. 밤에 잠도 못자고 이상한 것을 보며 꿈이 사납고 자살할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무어라고 해야 할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나가라!”고 외쳐야 할까?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순서를 밟아야 한다.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그 사람의 대답이 그렇다고 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를 대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그가 결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OOO 목사처럼 큰 소리로 축사를 해야 할까? 결코 아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을 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 뒤에 로마서 10장 9-10절로 데리고 가서 “사람이 만일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11-12절로 데리고 가서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고 수용하면 그 순간에 두 가지 일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먼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둘째로 그에게 마귀들이 있었으면 그 순간에 그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성령님의 일이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쫓으려고 하면 안 된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의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쫓겨난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마귀를 설혹 쫓아낸다 해도 이것은 허사가 되고 더 비극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가 마귀 들렸든지 들리지 않았든지 그는 마귀의 소유이며 여전히 지옥 자식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담배 피는 사람에게 권유하여 금연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는 여전히 지옥에 간다. 다만 담배 냄새만 없을 뿐이다.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술을 끊었다 해도 여전히 그는 지옥으로 간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회사업가 혹은 사회 복지사 혹은 마귀 쫓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데려와야 한다.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마귀나 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구원이다. 이것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허사요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사탄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 11-12절을 문맥 밖에서 취해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마태복음 12장 26절을 교묘히 이용한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마귀를 내쫓는 일은 마귀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뒤의 43-45절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쉼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empty)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 44절에 보면 ‘그 집이 비어 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처음에 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축사를 받고 나중에는 여덟 마귀가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축사를 받아 마귀가 쫓겨났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그의 주인이 없이 빈 상태로 있었고 더더욱 청소까지 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마귀들이 들어와 그를 점령한 것이다. 축사를 받아 마귀를 쫓아내도 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쁘게 된다.

사탄 마귀는 자기의 부하 마귀 하나가 내쫓겼다가 나중에 여덟 명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축사하는 자가 나가라고 할 때에 그 마귀가 나갈 것이다.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목사가 영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그는 여전히 지옥행이며 나중 상태가 더 나쁠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축사를 행하는 것은 실제로 마귀의 계약에 놀아나는 것이다. 제 정신으로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축사를 해서 마귀를 쫓아내도 허사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마귀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그 안에 마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해도 이 사람에게 축사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는 제 정신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쫓겨나간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 마태복음 12장 26절, 43-45절은 마태복음 7장 21-23절과 함께 읽어야 한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크리스천들이 축사를 한다고 설치며 다니면 그것은 실제로 마귀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탄의 왕국을 분열시킬 수 없다. 그는 더 확실히 정복하기 위해서 잠시 나간다. 그리고 다시 여럿을 데리고 들어온다.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짓으로 축사를 한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문맥에 맞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탐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주실 것이다. 사는 동안 사람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구하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내 삶에 풍성히 넘치길 기원한다.

사도행전 바로 이해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 즉 성령님이 오시는 것, 성령님이 내주시는 것, 성령님이 채우시는 것, 성령님의 침례 등을 공부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만 하면 곧바로 성령 침례 문제가 나오고 성령 침례의 증거로 방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목적은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주려는 것이다.³⁾

교리 문제의 핵심: 사도행전 이해

입신과 방언이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언 열풍이 이삼십 년 전부터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불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 방언은 힌두교도도 하고 불교도도 하고 다른 이교도들도 다 한다. 입신 역시 이교도들의 종교에서는 흔한 일이며 이슬람교도들 가운데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현재 마귀는 모든 이교도들의 종교에 거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방언을 종교통합의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우리가 다 방언을 하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는 말로 그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정당성을 갖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사도행전 2장을 가리킨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져다 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씀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용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들의 꾀면에 넘어갈 수가 있으므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의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회의 교리 문제는 대부분 변천기를 다루는 책에서 생긴다. 신약성경에서 변천기를 다루는 책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변천되는 과정을 그린다. 그래서 변천기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지

3) 이 글은 사랑침례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동영상은 보기 원하는 분은 <http://cbck.org>에서 특별방송을 보기 바란다.

못한 채 변천기에 이루어진 어떠한 절차나 일들을 완전히 모든 것이 확립된 이후에 가져다 적용하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사도행전은 AD 30년부터 70년 사이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골자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뒤에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고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변천되며 확고히 교리적으로 정립되는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분해해 보면 먼저 1장에서 7장에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7장에는 이방인 이야기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 8장부터 28장 사이에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맨 앞의 7장은 100% 유대인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8장은 반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다루며 9장 이후는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의 사역을 기술한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이다.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 누가는 연이어서 사도행전이라는 둘째 보고서를 썼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펴고는 “아, 지금부터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요, 편견이다.

성경 말씀이 무어라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즉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당시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일들을 바로 느낄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느끼도록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 열두 제자들이 그 사실을 눈으로 봤다. 그런데 그 열두 제자는 다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모두 유대인이다. 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아직도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은 필요치 않다. 아직 성령님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다.

6절이 중요하다. 이때에 유대인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라고 그분께 물었다. 그들이 말한 ‘그 왕국은 무슨 왕국인가? 3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여기 이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국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즉 그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그 왕국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교회가 나오는가? 그들은 예수님에게 교회를 세워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 유대인 제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교회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당시 땅에 있던 이 유대인 제자들은 아직 교회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읽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삼 년 반 동안의 공생애에서 계속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왕국, 이전 주님이 부활했으니 이스라엘을 위해 그것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는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그것을 두셨다.”고 하셨다. 그분은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우는 그 일을 부인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의 유명한 말씀을 주신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1장 9절부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를 뽑아 사도직을 계승하게 한다. 이런 상태에서 2장으로 넘어간다.

사도행전 2장

2장을 열자마자 오순절이 나온다. 오순절은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 오순절을 지킨 이방인들이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충만한 때가 차자 드디어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5절은 그때에 거기에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때에도 여전히 100%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만 나온다. 하나님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거하다가 자기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면서 거기서 보고 들은 일들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돌아가 증언하기를 원하였다.

유대인 제자들이 외국말을 하자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 놀라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꼬기도 했다. 이때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그 당시 베드로의 선포 대상은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과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사방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이 외국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는 구약성경 기록들을 처음부터 기억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록한 요엘서를 생각해 내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고 말하며 요엘서를 낭독한다.

요엘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그 안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 놀라지 말라. 요엘서 안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요엘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대언자 요엘은 마지막 날들에 주 곧 여호와와 의 날이 임하는 때 즉 메시아 왕국이 오기 바로 전에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요엘서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 말한다.

자,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요엘서를 조금 살펴보자.

요엘서 2장은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을 다룬다. 1-17절은 그때에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일을 기록한다. 18-27절은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친히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터이므로 자연계에 변화가 생겨서 들짐승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광야의 초장이 짝을 내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게 된다(22절; 사11, 40장 참조).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그들의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게 된다(23-24절). 그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27절).

27절은 역시 주의 날을 다룬 스바냐서 3장 14-20절 말씀과 동일하다. 이 말씀 다음에 유명한 28-32절이 나온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 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여기서 28절의 첫 두 단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그 뒤에’로 되어 있다. 즉 2장 1절부터 27절이 이루어진 뒤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 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2:17-21).

베드로는 ‘그 뒤에’를 ‘마지막 날들에’라고 기록한다.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엘서를 읽으면 누구라도 그것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엘서에서 요엘이 말하는 대상인 ‘너희’는 누구인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들딸,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은 다 누구인가? 100% 유대인이다. 요엘서에서 대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임할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유대 땅에 살게 될 유대인들이다. 바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외국말을 할 것이다. 대언을 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 동료들이 방언과 대언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요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약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주의 날이 임한 뒤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이것은 요엘서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민족들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민족들을 심판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들어갈 자들을 다 구분해서 소멸시킨 뒤에(마25:41) 드디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은 채 들어간다(마25:34). 이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손을 낳으며 마귀의 유혹이 없는 가운데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살게 된다(계20장). 이것이 구약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했지만 사실 19-20절의 ‘위로 하늘에서

의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의 표적들 곧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은 그 오순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21절 말씀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요엘의 글을 인용했다.

그러나 17-18절뿐만 아니라 19-20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말세에 7년 환난기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의 심판이 임해서 유대인들은 이적들과 표적들,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은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요점을 이야기한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이는 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시라.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이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주가 누구냐, 그걸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너희가 이는 마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들과 이적들을 일으켜서 메시아 표적들을 보여 주시고 이분이 너희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 보여 주셨는데 너희가 본디오 빌라도와 합작해서 이 영광의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했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분을 부활시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는 말한다. 연이어서 36절에서 그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고 설교의 쐐기를 박는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말한다. 교회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유대인들이다. 무엇을 알라고 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 누구를 불러야 할까?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 처형시킨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쳐야 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23:37-39).

여기서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39절에서 분명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자기를 부를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고 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초대 교회의 일을 기록한다. 그러나 여기의 초대 교회는 100% 유대인 교회이다. 이방인은 하나도 없다.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의 프로그램은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는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계획에 따라 착착 일을 진척시켜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일까지 끌고 나가는데 이 땅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전혀 마음에 없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 유대 민족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의 날이 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37절로 넘어가니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꼬?”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41절에 보니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즉 유대인 제자들에게 더해졌다. 교회가 아니라 백이십 명의 그 제자들에게 더해졌다.

그렇게 더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면서 빵을 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4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으므로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교회에 더하셨다. 드디어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게 초대 교회이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초대 교회는 100%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여기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여전히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고 왕국을 빨리 받아들여서 주의 날이 임하면 메시아가 임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내 해석이 아니다. 이제 3장으로 가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도행전 3장

3장이 시작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를 고친다. 이렇게 해서 11절에 건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백성이 놀랐다. 이에 12절에서

베드로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나?”고 말한다. 그는 “교회야!”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는 2장의 방언과 3장의 병 고침의 표적이 생긴 이유를 설명한다.

13절에서 그는 동일한 주제를 설명한다. 즉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 유대인들의 하나님 - 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 주제이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8절에 가서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 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다.”고 말한다.

자,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 19-21절을 보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19절의 ‘너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이다. 문맥에 맞게 이 구절들을 읽어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회심한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해야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게 되고 그러면 온 민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초점은 “우리 온 민족이 회개하고 회심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고 그러면 주의 날이 임하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며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다.”라는 것이다.⁴⁾

그 이유는 21절에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말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된다. 지금 너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회복하는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

4) 19절은 매우 중요한 절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 또 오역을 해서 독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새롭게 하는 때가 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역성경은 이를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해서 회개하면 사람이 유쾌하게 되는 것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부터 구약의 신명기를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25절에서 “너희가 바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즉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26절에서 온 유대 민족이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자,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는가? 이방인이 있는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땅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은 아직 교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때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뒤에 즉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열어서 사람들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시는데 땅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모른 채 메시아 왕국의 도래만을 생각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때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사도행전 4-5장

자, 이런 상황에서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게 돼서 초창기 유대인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 사도들은 풀려나서 다시 기도하며 “병을 낫게 하는 기적과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30절). 2장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고전1:22)

유대인들은 이집트 탈출 사건 이후 국가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요구했다. 그들은 대언자가 오면 반드시 표적을 요구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했다(출4:1-17).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요구했다(마12:38). 따라서 그들은 사도들에게서도 표적을 요구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히2:3-4).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여 주셔서 사도들이 말한 것을 확증해 주었다고 기록한다.

사도행전 4장 32-37절에 보면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전부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온 민족이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떠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절에 따라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초대 교회처럼 교회에 모든 재산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공산주의처럼 물건을 모두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발생한다.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여전히 문맥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것이다.

사도행전 6-7장

6장에 들어가면 본토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태어나 그리스말만 쓰는 유대인들 사이에 양식 배급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다. 여전히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회가 다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왕국이 빨리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는 것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

히브리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일곱 사람을 뽑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스테반이었다. 스테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그분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는 오히려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공회 앞에 데려다가 법정 심판을 받게 한다.

이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은 공회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반역과 불신앙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한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가서 과거에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경고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라도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렇게 그가 유다 민족의 자존심을 구기는 발언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퍽해져서 귀를 꽉 틀어막고는 스테반에게 달려들었다(57절).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대제사장을 비롯한 온 유다 백성은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과 비슷하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참다 참다 못해 십자가 사건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에게 정죄의 말씀을

피부었다.

여기까지의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회심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다. 여기까지 오면 약 7년을 참아 주신 것이다. 또한 그분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동원하여 유대인 사도들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왔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을 시행하셨다. 즉 유대인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다. 그들은 오직 메시아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통해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대제사장의 주도 하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이로써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교회 시대 동안 잠시 옆으로 치워진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8장에 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행하는 일이 생긴다.

사도행전 8장

8장 1절은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하는 사울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뒤 곧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흩어졌음을 보여 준다. 유대인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만 남겨둔 채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 즉 주의 날의 도래는 점점 더 그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되고 말았다.

5-25절은 유대인들의 피를 반쯤만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을 기록한다. 그리고 26-40절은 역시 유대인들의 피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 내시가 회심한 것을 기록한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성취되었다.

사도행전 9-11장

자,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증언하는 것이다. 즉 이방인들에게 가야하는 일이 남았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다. 15절에 이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 유대인들이 문제이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진행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택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거부하자 자신이 친히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10장 14-15절).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분은 이 일을 자그마치 세 번이나 보여 주셨다.

그 뒤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때에 알게 되었다(10장 34-35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여전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기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불러 그가 고넬료에게 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니 할 수 없이 그들은 굴복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행11:18).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사건 이후로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이방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은 결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학 관계가 완성되는 데 약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 12장에서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대한 핍박이 한 번 기록되었고 13장 이후로 베드로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만 나오는데 그나마 바나바도 15장까지만 나오고 16장부터 28장에는 100%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사역만 나온다.

사도행전 7장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와 더불어 예수님을 거부한 뒤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다가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훼파됨으로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5월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결국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극심한 환난기를 겪으면서(마24:21; 단12:1)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롬 11:25-26). 바로 이때에 요엘서 2장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며 그들이 방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슌12:10).

결 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특하면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부터 8장까지의 기록은 그 당시의 모든 표적과 기적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됨을 보여 준다. 특별히 방언과 대언 등의 은사는 때가 되어 역할을 다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한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고전 13:8-10).

그래서 병 고치는 자, 능력을 보이는 자, 사도, 대언자 등은 모두 성경 기록의 계시가 완성된 AD 90년경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초대 교회인지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졌다. 교회에 관한 계시 역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주어져서 AD 70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 뒤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에 드러난 모든 것을 정리한 것과 또 앞날에 대한 계시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교회에 관한 계시가 확고히 정립된 때의 초대 교회들에게 주신 서신들에 있는 규범들을 따라야 한다.

변천기에는 여러 가지가 변한다. 예를 들어 구원받는 모습도 여러 군데서 다르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며 방언을 한다.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방언은 하지 않는다.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지만 역시 방언을 하지 않는다. 9장에서는 바울이 구원을 받지만 방언을 하지 않는다.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방언을 한다. 11장 이후로 28장까지는 19장의 아볼로의 제자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방언을 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시대에는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 즉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 이미 구약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 - 아브라함, 다윗, 침례자 요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 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유대인이므로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다시 물 침례를 받았고 또 19장의 제자들은 성령 침례와 함께 방언도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변천기의 상황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취해서 근본적인 교리를 삼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 그리고 19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 사례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방언을 하지 않았다. 즉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방언을 하지 않은 사례와 사람이 대다수였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믿는 바를 성경으로 입증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이 그것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교리를 찾아야 할까? 성령 침례 교리를 포함한 신약성경의 교회와 관련된 교리는 모든 것이 완전히 확립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신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러므로 변천기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없다. 다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지배하에 살라는 명령이 있을 뿐이다(엡5:18).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변천기를 다루는 책들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확립된 상태에서 주어진 기록에서 교리를 찾아야 한다. 사도행전 2장의 표적들은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적들이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것을 보고 돌이킬 사람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주어진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고후5:7).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분명한 답을 주셨다(마12:39).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3.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9.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그리스도예수안에.
10.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12.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3.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생명의말씀사.
14.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5.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에텔 R.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6.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7.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8.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0.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21.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22.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23.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24.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25.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26.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7.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그리스도예수안에 성경 및 서적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으로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으로, 클라렌스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구성되어 성경 신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지식을 담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책입니다.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이해를 돕는 별도의 책이 합본돼 있습니다.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리크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각각 조금씩 다른 내용이지만 세 권 중 한 권만 보셔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겐,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역사'는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정, 번역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줍니다. '답변서'는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혀 줍니다. '입문서'는 길라잡이 역할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이들의 생생한 체험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바로알기 알 레이시 외

알 레이시 목사의 저서와 의사인 엠말 디한 박사(울법인가, 은혜인가.의 저자)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겨 있는 책으로,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입니다.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증거합니다.



천국과 지옥 바로알기 알 레이시

알 레이시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풀립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는 동시에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천사와 UFO 바로알기 정동수

날개 달린 천사, 아기 천사, 여자 천사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천사와 네티피, 마귀의 천사들이 땅속에서 벌이는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참된 길을 알려줍니다. 체험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수많은 한글과 영어 성경의 역본들을 여러 차례 읽으며 철저히 비교분석한 책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무오성과 이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흥정역이 가장 정확한 한글 성경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자들의 글모음 김재욱 외 9인

김문수, 김용욱, 김재근, 김재욱, 김학준, 노영기, 이은희, 정성권, 진미희, 홍승현 등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최후 권위로 믿는 이들이 본 사이트에 썼던 글을 중심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바이를 빌리버들의 고뇌와 기쁨과 바른 말씀으로 얻은 증거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있습니다.

흥정역 한영대역 및 스티디 바이블

다른 모든 한국어 성경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입니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하며 볼 수 있으며,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사(032-872-1184) 및 온라인 기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총판 : 생명의 말씀사) www.KeepBible.com